

“경전 함께 읽으면 세상이 밝아져요”

수원포교당 ‘법공양 생활화’ 운동 새 실행코드로

3월 22일 수원포교당. 반야회 정기 법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하나둘 <불교 성전>을 가방에서 꺼낸다. 삼귀의로 법회가 시작된 뒤 ‘법공양’을 일러주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박하원 반야회장이 <우리말 불교성전(동국역경원 판)>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오늘은 <불교성전> 154페이지 ‘괴로움을 없애려면’을 법공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법회에 참석한 대중이 박하원 회장을 따라 불송하기를 5분여, 분위기를 한결 경건해졌다.

“요즘 우리집 아들 녀석이 친구들과 다뤄 남 모르게 고민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함께 등산을 갔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다음날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 경구를 묵송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학교에 가더군요.”



수원포교당 중무원들이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공양’을 올리고 있다.

정기법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 회의 등 크고 작은 의식과 불사, 일상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말씀을 봉송한 뒤라야 시작된다.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법공양을 올리고 대중이 함께 봉송하는 형태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의 발의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법공양 생활화’는 캠페인은 대중 스님, 중무원, 신도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수원포교당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수원 서호노인복지관과 청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경찰대 법당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가정에까지 번져 나갔다. 성관 스님은 <불교성전> 읽기를 새로운 실행문화로 권장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법공양이면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성전>을 읽음으로써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불자들을 온전히 불교에 귀의시킬 수도 있어요.”

홍광회 신도회 부회장은 “이 운동의 포인트는 불교를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10년동안 절에 다니고도 불교를 모른다고 말하는 불자들이 <불교성전>을 자주 대하다보면 모든 일을 부처님 말씀에 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부회장은 ‘법공양 생활화’가 뿌리 내린 요즘, 가정과 집안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재미를 맛보고 살아간다고 했다. 늘 <불교성전>을 읽다보니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은 만족감과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경찰복지 ‘승진바람’ 경사났네!

치안정감·총경 등 경감이상 15명 “부처님 은혜”

대한민국경찰총연합회(회장 한진호·경찰청 정보국장) 소속 경찰복지 담당자가 1~2월 있었던 경찰 승진예정자 발표 및 정기인사에서 승진·전보됐다. 특히 경감 이상 고위급 간부회원의 약진이 두드러져 경찰복지들의 실행활동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 불교회장을 지낸 이택순 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되면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경찰청 불교회 박재진 회장이 총경으로 승진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보직됐으며, 이만형 수석 부회장으로 경정으로 진급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은 정은경 회장으로 승진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겸 경정으로 보직됐으며, 이만형 수석 부회장으로 경정으로 진급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은 정은경 회장으로 승진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겸 경정으로 보직됐으며, 이만형 수석 부회장으로 경정으로 진급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다.

정기인사에서 회장단과 집행부가 상당수 전보된 불교회들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임승택 경비1

과장과 조계훈 112지령계장을 각각 새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충남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불교회도 각각 이기병 인사계장과 진계수 여성청소년계장을 회장으로 뽑았다.

다음은 경감 이상 승진 또는 승진예정된 경찰복지들의 명단이다.

△치안정감: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

△총경: 박재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정은식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지대, 정인식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경정: 강복순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만형 광주 광안경찰서 수사과장, 김호철 경기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병준 인천 지방경찰청, 황인옥 전남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성조 경북 철곡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최재만 울산지방경찰청 불교회장

△경감: 강명순 경기 광명경찰서, 노철수 강원지방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 이규현 충북지방경찰청, 이을수 충남 홍성경찰서 경무과장



한국공무원복지연합회는 3월 19~20일 대전 토지공사연수원에서 제2차 총무단 회의를 열었다.

‘봉사의 날’ 2회로 늘려

공불련 총무단회의서 결의

최대 직장 실행단체인 한국공무원복지연합회(회장 김세호)가 소속단체간 ‘밀고 끌어주기’식 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공불련은 3월 19~20일 대전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제2차 총무단회의를 열고 활동이 미약한 공무원복지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속 복지회의의 활동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복지모임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기관 및 상급기관의 지원을 통해 복지회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불련은 또 소속 복지회 활성화를 위해 복지회내 공부모임과 친불가 배우기, 목탁 습득 등 특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존의 법회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법회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공무원복지 봉사의 날(11월 26일)’은 연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지역내 봉사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번 총무단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6월 수계법회 불행(양산 통도사) △7월~9월 해외 성지순례(중국 동황)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불행(대전 광수사) 등을 차질없이 개최해 공무원복지자들의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도근 공불련 사무총장(과천청사불자연합회장은 회향식에서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공불련이 내실있는 실행단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속단체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각 도청 및 광역시청의 주도 아래 산하기관의 실행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총무단회의에는 송도근 공불련 사무총장,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 장광대 울산광역시청 불자회장 등 40여단체의 회장 및 총무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 사람

조계훈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



서울지방경찰청 법당에 팔상탱화를 봉안하는 법회가 열린 3월 23일, 조계훈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49·112지령계장·사진)이 좌석 배치에 열중하고 있었다. 법회가 시작되기 한시간 전부터 법당에 찾아와

지방경찰청 본청으로 전보 명령을 받은 지난해 7월 곧바로 불교회부터 가입했다. 어렸을적 자식을 위해 부처님전에 정성껏 기도를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법회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 선출 후 열리는 첫 행사로 각별히 신경이 쓰인 탓이다.

조계훈 회장은 “회원들이 고된 직장생활 가운데서 실행활동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

개인실행 독려하며

단체 특성화에 몰두

다.

“불교회장은 회원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이 신앙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고된 업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수사계통에서 일했던 조계훈은 바쁜 일과로 인해 법당을 찾지 못하다가 법회를 가지게 됐다. 불교회 활동을 할 기회도 그만큼 늦게 찾아왔다. 서울

게다가 군대시절 20리를 걸어서 찾아간 법당에서 경전을 외던 아련한 추억이 그를 자연스레 불교회로 이끌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극적이 고 조직적이 못한 모습이 늘 아쉬웠다”는 조계훈은 “개인 실행을 중시하고 인정이 넘치는 불교회란의 특징을 살려나감으로써

단점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냈다.

이를 위해서 조계훈은 회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매주 한차례 열리는 교리강좌, 정기법회 외에 각종 기도와 친불가 등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사무실이란 가정이란 업무현장이란 회원들의 생활 속으로 불교를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봉영 기자

언불련 새 집행부 구성

정기법회 활성화 등 활동 재개

언론사불자연합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이연재·MBC 보도전략팀장)는 3월 17일 부회장에 김태호 한국방송(KBS) 불교연구회장과 김중두 경향신문 불자회장을 임명했다. 또 대표총무에 최종라 MBC 불교연구회 총무를, 총무에 이태진 서울방송(SBS) 불교회 총무와 유기정 경향신문 불자회 총무를, 홍보간사에 김도만 KBS 불교연구회 홍보부장을 임명했다.

이 밖에도 새 집행부를 지도할 고문에는 박영석, 김진평, 정중환(이상 KBS), 류자호, 박준영(이상 SBS), 강신철(경향신문), 장영호, 류희근, 황진욱(이상 MBC)씨를 선임했으며, 감사에 허원재 SBS 불교회장을 인선했다.

한편 언론사불자연합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정오 열리는 정기법회의 시간을 저녁 7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정동) 불자회와 SBS(목동) 불교회가 그동안 시간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때를 조처다. 박봉영 기자

중국 오대산, 운강석굴 순례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중국 최고의 목탑인 응현목탑 등을 전세기편으로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착석 관계로 6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세기 특별가 4박 5일 69만원

- 출발일 : 4월 30일 ~ 5월 4일 (4박 5일)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말

제 1일 4/30(토)	인 천 태 원	항공 22:50 23:50	인천공항 집결 / 중국 수속 후 인천공항 출발, 중국의 태원 도착 후 호텔 투숙
제 2일 5/1(일)	태 원 오대산	전용차량	호텔투숙 / 조식 후 오대산으로 이동, 도중에 불광사, 불공삼장이 건립된 금각사, 장엄한 일주문이 있는 용천사 참배
제 3일 5/2(월)	오대산	전용차량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중대 등정, 천년고찰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한 수성사, 오대문수보살을 모신 대라정 등 참배
제 4일 5/3(화)	오대산 대 동	전용차량	오대산 출발 중국 최고의 응현목탑, 현공사 순례 후 대동 도착,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순례 후 호텔 투숙
제 5일 5/4(수)	대 동 태 원 인 천	항공 19:00 22:00	대동출발 / 태원 도착 후 고색 창연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송선사, 진사 등 순례 후 태원 출발 / 인천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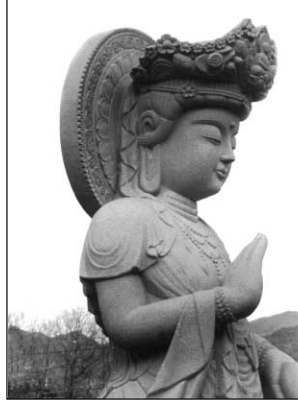
- 구비서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합니다)
- 여권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도 5만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